

대학생의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애우* · 이윤정**†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석사과정생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The Effects of Fashion Competence on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kills and Appearance Anxiety

Li, Aiyu* · Lee, Yoon-Jung**†

*Master's Student, Dept. of Human Ecology &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ustainable Living Syste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fashion competence on social anxie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kills and appearance anxiet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235 college students via online communiti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sub-factors of fashion competence, including fashion involvement, fashion innovativeness, and 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on model showed that while fashion involvement indirectly reduces social anxiety through interpersonal skills,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appearance anxiety. Fashion innovativeness had an indirect impact on social anxiety through appearance anxiety, bu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through interpersonal skills. 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influenced social anxiety indirectly through both interpersonal skills and appearance anxiety, and it also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fashion competence can have a dual impact on social anxiety, and suggested that enhancing 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through fashion therapy programs might be beneficial for resolving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However, such programs should avoid excessively pursuing fashion innovativeness, as it can increase appearance anxiety, and should focus on enhancing confidence in one's appearance.

Key words: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 대학생(college students), 사회불안(social anxiety),
외모 불안(appearance anxiety), 패션 유능감(fashion competence)

† 교신저자: Lee, Yoon-Jung,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E-mail: yleehe@korea.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로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Jung & Chung, 2002). 이러한 발달 단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생은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연령대라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불안 증상이다(Stein & Stein, 2008). 적정 수준의 사회불안은 인간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개인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도 하나(Antony & Swinson, 2000), 긴장과 불안의 강도가 지나칠 경우 인간은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상황에서 위축되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건강한 삶을 방해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e & Kim, 2019).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은 사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여 개인적 성공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Lee et al., 2008).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변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학생은 패션과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외모를 통한 인상관리는 중요한 사회적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Hwang & Lee, 2019; G. Lee et al., 2023), 이는 대인관계를 위한 인상관리와 의사소통에서 외모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패션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자신감이 높아지며(Jo & Koo, 1986),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이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게 하고 이는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 2019). 특히 외모 관리와 패션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꾀하는 패션 테라피에서는 패션 유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ee & Lee, 2019; Masuch & Hefferon, 2014; Shin & Lee, 2000). 패션 유능감은 본인이 상대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등 패션 활용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다(Choi, 2006).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은 대표적인 사회 적응 능력의 하나이므로(Kang & Choi, 2011; Kim & Lee, 2013), 패션 유능감의 제고를 통하여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다면 대학생이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불안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Cho & Choi, 2014). 따라서 패션 유능감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불안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패션 유능감은 사회불안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반대의 영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패션에 대해 이해가 높을수록, 그리고 패션에 관련된 영역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외모 수행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완벽주의로 인해 외모 불안이 높아지고 나아가서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Im, 2015). 특히 외모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Lee & Ku, 2009),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좌절하게 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고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Moon, 2019). 공격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인상관리에 민감하고 인상관리의 수단으로 패션을 활용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가 있는데(Miller et al., 1982), 공격 자의식 수준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Hope & Heimberg, 1988; Leigh & Clark, 2018)을 고려하면 인상관리에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과 연관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회불안에 영향 주는 요소로 패션의 효과를 직접시킨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패션 유능감의 영향을 볼 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이 패션 유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예방 요인을 발굴하고 이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Social Anxiety)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상상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를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생에서 다양한 수준의 사회불안을 느끼게 된다. 사회불안은 행동적 변화, 생리적 변화, 인지적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Rapee & Heimberg, 1997).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될 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 모두 사회불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동기와 불안은 성공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개인의 힘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안은 회피 행동을 동반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Stopa & Clark, 2000). 사회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사회불안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병적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다(Rapee et al., 2022).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원인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물학적, 인지적, 대인관계적 요인 등이 연구되었다. 그 중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 중 하나가 Clark와 Wells(1995)가 제안한 사회불안의 인지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평가받을 것에 대한 사회적 위협을 지각하여 여러 가지 신체적 및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중 한 가지가 자기초점적 주의(self-focus attention)이며(Leigh & Clark, 2018), 이는 주의의 초점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집중되면서 객관적인 외부 단서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불안이 “내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능력이 사회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중 하나로 공적 자의식의 발현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달 단계상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면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잦아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g & Chung, 2002).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의 유발 변인으로 내면화

된 수치심, 내현적 자기에,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다(Jin & Park, 2021; Jung & Oh, 2005; Kim & Hyun, 2013). 또한 사회불안의 억제 변인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 효능감, 자기자비, 자기제시 기대, 정서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oi & Choi, 2013; Kim & Hyun, 2013; Lee & Lee, 2020; Na & Shin, 2016). 이와 같이 사회불안은 자기개념 및 자기평가와 관련되고, 사회적 자기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패션 유능감(Fashion Competence)

개인은 착용한 패션으로 인해 성향, 인지능력, 유능감 등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며(Kang et al., 2013), 패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Masuch & Hefferon, 2014).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심리적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보는 패션 테라피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Shin과 Lee(2000)가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프로그램 참여 후 전체적인 실제 자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어 자기 존중감이 향상되었고,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었다. Lee와 Lee(2019)의 연구에서는 패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외모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이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선순환 피드백이 참여자들에게 동기부여하여 패션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 패션의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한 패션 테라피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패션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패션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Lee & Lee, 2019), 패션 유능감이란 본인이 상대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등 패션 활용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Choi, 2006). 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패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 그리고 활용 탄력성에서 비롯된다.

패션 유능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패션 관여도, 패션 혁신성, 패션 코드 자신감 등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Lee et al., 2017). 패션 관여도는 패션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 또는 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패션에 관심이 많을수록 패션을 통한 외모관리를 많이

하며, 외모관리를 하는 집단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Hwang & Kim, 2006).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Lee et al., 2019). 한편 패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와 지각된 자기 불일치를 유발하고, 자기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은 외모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Im, 2015). 패션 관여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패션에 대한 정보탐색을 많이 하게 되고, 사회적 외모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검토하는데(Jun et al., 2010), 외모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 외모 불안 및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Boursier et al., 2020; Lee, 2006; Rapee et al., 2022).

패션 혁신성은 개인이 타인보다 먼저 유행을 받아들이는 정도이다(Lee et al., 2017). 패션 혁신성이 높은 경우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모 관리에 많이 참여하며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Bae & Sung, 2013). 유행을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 차별화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과정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신체 불만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션 코드 자신감은 자신의 패션 코드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은 자기 효능감과 직결되고, 자기 효능감은 심리적 건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Kim, 1999). 패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자신감은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o & Koo, 1986). 패션 코드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패션 연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다양한 패션을 시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Park & Choo, 2012). 외모 불만이 개인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위협 지각에서 생성된다고 볼 때(Gao et al., 2023), 자신감은 이러한 위협 지각을 억제해 주면서 외모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패션 유능감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외모 불안을 야기하여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션 유능감과 사회불

안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을 고려하였다.

3.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Skills)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과정이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 정서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소외감, 따돌림, 무시 등과 같은 건전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Kim & Kim, 199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사람과의 만남이 잦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지속하는 능력이다(Buhrmester et al., 1988).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영역을 처음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개방, 정서적 지지, 갈등 다루기로 구분된다(Kim & Kim, 1999).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탐구가 많이 진행되었다(Kang & Choi, 2011; Lee & Chae, 2012). 자기존중감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 건전한 대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 Chae, 2012). 패션과 대인관계능력을 직결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외모 만족도와 자기 불일치가 대인관계 능력에 주는 영향은 많이 보고되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비교나 주위의 유행에 대한 관찰, 타인의 평가를 통하여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외모의 불일치는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Jung & Oh, 2005). Kim(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Kim & Kim, 2013).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고 이상적 자기 이미지와 지각된 자기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줄여주는 데 패션제품을

사용한다(Kim & Lee, 1997). 이처럼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이 자기존중감을 높여준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An, 2019). 또한 개선된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긍정적인 평가 및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도 있다(Han et al., 2016).

한편, 대인관계능력은 다양한 긍정적 결과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학 생활 적응력을 보이고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Lee, 2013; Song, 2017).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 SNS 중독 경향 등을 보일 수도 있다(Kwahk & Hong, 2018). 대인관계능력은 사회 적응 능력 중 하나로 사회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Kang & Choi, 2011; Kim & Lee, 2013).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문제해결능력이 높으며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높다(Son, 2017).

4. 외모 불안(Appearance Anxiety)

외모 불안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강한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외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평판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Im, 2015). 외모 불안은 많은 심리적 문제 및 자기평가 장애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안의 중요한 예측 변수 중 하나이다(Liao et al., 2023). 사회공포증의 인지모델에 따르면 외모 불안은 개인이 자기 이미지에 자기 중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외모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을 두려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Mehtap & Ahmet, 2023).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Yu & Lee, 2022).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바람직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외모에 따른 편향된 인식으로 인하여 직장 생활, 면접에 실질적인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Hosoda et al., 2003). 외모에 대한 기준은 주로 미디어와 준거 집단의 피드백을 통하여 전달되고 공유되며, 매력적인 외모 기준은 반복적 노출을 통하여 외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상화된 외모 기준을 제시한다(Perloff, 2014). 또한 사람들은 사회적 이상화된 외모를 내면화하고 사회적 비교 과정을 거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다(Mehtap & Ahmet, 2023).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데(Lee, 2016),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보다 소극적이게 된다(Lee & Choi, 2015).

외모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패션 지식을 많이 학습하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이상적인 이미지와 지각된 이미지의 괴리를 경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외모 불안을 겪게 되고, 패션에 더욱 관여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An, 2019; Im, 2015).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외모 관리, 패션 활동을 하게 되고 악순환적으로 영향이 가중될 수 있다(Yu & Lee, 2022). 따라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노출되는 정도가 많을수록 외모 불안을 높이고, 외모 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외모 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며,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M. Lee et al., 2023). 더 구체적인 증거는 외모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Yu & Lee, 202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n(202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기 이미지에 과도하게 집중할 때, 자기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불안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되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Kang et a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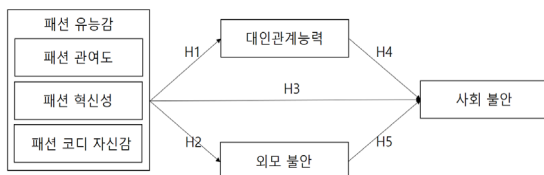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패션 유능감은 사회불안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적응 능력의 하나이고 패션 유능감은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이므로, 패션 유능감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며, 대인관계능력 향상은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패션 유능감은 패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외모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연관되므로 외모 불안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할 것이며, 외모 불안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효과를 동시에 탐구하기 위해 패션 유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이 매개해 주는지를 규명하고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대해 갖는 전반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H1. 패션 유능감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패션 관여도는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패션 혁신성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패션 코디 자신감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패션 유능감은 외모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패션 관여도는 외모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패션 코디 자신감은 외모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 H3. 패션 유능감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패션 관여도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패션 혁신성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패션 코디 자신감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대인관계능력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외모 불안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연구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KUIRB-2023-0284-01). 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모집공고와 설문 링크를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였고 온라인 설문지의 첫 화면에는 연구 참여 설명서, 연구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시하고 참여 동의 여부 확인을 받았다. 참여 동의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 진행되었다. 회수된 288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5부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대학생이었으며, 응답자는 총 235명으로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이 55명(23.40%), 여학생이 180명(76.60%)이며,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 24명(10.21%), 2학년 36명(15.32%), 3학년 57명(24.26%), 4학년 79명(33.62%), 5학년 2명(0.85%), 휴학생과 수료생이 37명(15.74%)이고 평균 연령은 24세($m=23.7, s.d.=2.23$)이었다. 또한 67.23%의 대학생의 월평균 수입/용돈은 20만~100만이었고, 55.74%의 대학생의 월평균 패션 소비는 5만~20만이었고 평균적으로 대학생의 패션 소비는 총수입(용돈)의 20%를 차지하였다. 48.08%의 대학생의 하루 평균 사회 활동 시간은 5시간 이상이고, 71.06%의 대학생의 하루 평균 패션 활동 시간은 0시간~2시간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35)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여	180	76.60	학년	1	24	10.21
	남	55	23.40		2	36	15.32
전공	의류, 의상학	8	3.40		3	57	24.26
	기타	227	96.60		4	79	33.62
패션관련 업무경력	있다	15	6.38		5	2	0.85
	없다	220	93.62		수료/휴학	37	15.74
월평균 수입(용돈)	20만원 미만	19	8.09		5만원 미만	39	16.60
	20~50만 미만	64	27.23		5~10만원 미만	58	24.68
	50~100만원 미만	94	40.00		10~20만원 미만	70	31.06
	100~200만원 미만	33	14.04		20~30만원 미만	36	15.32
	200~300만원 미만	20	8.51	30~40만원 미만	12	5.11	
	300만원 이상	5	2.13	40만원 이상	17	7.23	
하루 평균 사회 활동 시간 (주당시간/7)	1시간 미만	9	3.83	1시간 미만	109	46.38	
	1시간~2시간 미만	23	9.79	1시간~2시간 미만	58	24.68	
	2시간~3시간 미만	30	12.77	하루 평균 패션 관련 활동 시간 (주당시간/7)	2시간~3시간 미만	32	13.62
	3시간~4시간 미만	26	11.06	3시간~4시간 미만	18	7.66	
	4시간~5시간 미만	34	14.47	4시간~5시간 미만	8	3.40	
	5시간~6시간 미만	28	11.91	5시간~6시간 미만	6	2.55	
	6시간 이상	85	36.17	6시간 이상	4	1.70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Table 2). 패션 유능감은 Choi(2006), Jun 외(2010), Park과 Choo(2012)의 연구를 기초로 Lee 외(2017)가 재편성한 패션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패션 관여도(Fashion involvement, 5문항), 패션 혁신성(Fashion innovativeness, 4문항), 패션 코디 자신감(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4문항)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패션 유능감의 구조를 확인하고 패션 관여도 척도 중 ‘나는 나의 스타일을 돕기 위해 옷에 액세서리를 몇 개 달았다’를 제외하고 세 요인에 부하량이 .70 이상인 문항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패션 관여도 .77, 패션 혁신성 .84, 패션 코디 자신감 .77,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Mattick과 Clarke(1998)가 제작하고 Kim(2001)이 변안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기 어렵다’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기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하나의 변인으로 보아 19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Buhrmester 외(1988)가 개발하고 Kim과 Kim(1999)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처음관계 맺기,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 노출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을 하나의 변인으로 보아 40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외모 불안은 Hart 외(2008)의 사회적 외모 불안 척도를 M.

Table 2.
Measurements Used in the Current Study

변수(문항수)	문항	출처	
패션 관여도 (4문항)	내 인생에서 옷을 잘 입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옷에 관심이 많다. 옷은 내가 누구인지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옷이라도 가방, 모자 등 소모품을 활용해 분위기를 바꾼다.	Lee 외(2017)	
	패션 혁신성 유능감 (4문항)		나는 종종 친구들과 패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옷을 살 때 패션 트렌드에 신경을 쓴다. 패션을 트렌드하게 입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새로운 패션을 빨리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패션 코디 자신감 (4문항)	나는 몸을 덮는 코디법을 알고 있다. 나는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 조화로운 색상을 잘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패션 스타일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 나는 T.O.P에 따라 패션 스타일을 결정한다.		
	사회불안 (19문항)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
대인관계능력 (40문항)	관심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하찮은 사람으로 대할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는 가까운 관계에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		Buhrmester 외(1988) Kim과 Kim(1999)
	외모 불안 (13문항)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외모에 대해 험담을 할까 봐 걱정된다.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호감으로 여길까 봐 걱정된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매력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다. 나는 내 외모로 인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된다. 나는 내 외모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된다.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걸 때 긴장이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불안하다.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종종 불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를 부정적으로 판단할까 봐 걱정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의 결점을 눈치챘다고 느낄 때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내 연인이 내 외모 때문에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하다. 나는 사람들이 내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Lee 외(2023)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사회적 외모 불안 척도(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를 통한 문항분석 결과 원척도의 16개 문항 중 3개의 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사진 찍힐 때 신경이 쓰인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긴장된다”가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총 13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3문항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

균, 표준편차, 빈도 등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다중병렬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Baron와 Kenny(1986)의 3단계 분석과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의 사회불안, 패션 유능감 및 대인관계 능력과 외모 불안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의 평균은 2.89($SD=0.76$), 패션 유능감의 평균은 3.35($SD=0.70$),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57($SD=0.46$), 외모 불안의 평균은 2.67($SD=1.12$)이었다. 각 변인은 정규 분포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 수 있다(Curran et al., 1996).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패션 유능감의 하위요인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패션 관여도는 외모 불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대인관계능력($r=.2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사회불안($r=-.19,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r=.2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대인관계능력, 사회불안($r=-.03, p=.62$)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패션 코드 자신감은 대인관계능력($r=.2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외모 불안($r=-.14, p<.05$), 사회불안($r=-.31,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대인관계능력은 외모 불안($r=-.37, p<.001$) 사회불안($r=-.60,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모 불안은 사회불안($r=.5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연구 모형 검증

패션 유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의 매개효과를 설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와 Kenny(1986)의 3단계 분석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에 대한 패션 유능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패션

Table 3. Bivariate Correlation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Variables (N=235)

변인	패션 유능감	패션 관여도	패션 혁신성	패션 코드 자신감	외모 불안	대인관계능력	사회 불안
패션 유능감	-						
- 패션 관여도	.82***	-					
- 패션 혁신성	.78***	.42***	-				
- 패션 코드 자신감	.80***	.60***	.38***	-			
외모 불안	.13	-.03	.20**	-.14*	-		
대인관계능력	.20**	.20**	.02	.28***	-.37***	-	
사회불안	-.21**	-.19**	-.03	-.31**	.58***	-.60***	-
평균(<i>m</i>)	3.34	3.64	2.89	3.53	2.67	3.57	2.89
표준편차(<i>SD</i>)	0.71	0.82	0.98	0.83	1.12	0.46	0.76
왜도	-.30	-.30	-.11	-.61	.26	-.33	-.04
첨도	.17	-.29	-.55	.23	-.86	.38	-.23

* $p<.05$, ** $p<.01$, *** $p<.001$.

관여도, 패션 혁신성, 패션 코드 자신감을 독립변수, 외모 불안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패션 유능감의 하위요인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패션 유능감의 각 하위요인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가 투입되는 3단계 중 공차한계는 .80-.98로 기준치인 .10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0-1.25로 기준치인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단계 중 Durbin-Watson은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된다.

패션 관여도, 패션 혁신성과 패션 코드 자신감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1-1단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3, 231)=8.90, p<.001$). 회귀분석 결과, 패션 관여도($\beta=.14, t=2.34, p<.05$), 패션 코드 자신감($\beta=.28, t=4.48, p<.001$)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 혁신성($\beta=-.07, t=-1.05, p=.29$)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준화계수 값에 따르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은 패션 코드 자신감이 패션 관여도보다 크다. 따라서 패션 관여도와 패션 코드 자신감은 대인관계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가설 H1-1과 H1-3은 지지되었으며, H1-2는 기각되었다.

패션 관여도, 패션 혁신성, 패션 코드 자신감이 외모 불안에 미치는 영향(1-2단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3, 231)=8.98, p<.001$). 회귀분석 결과, 패션 혁신성($\beta=.25, t=4.07, p<.001$), 패션 코드 자신감($\beta=-.20, t=-3.20, p<.05$)은 외모 불안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 관여도($\beta=-.02, t=-0.38, p=.70$)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연구가설 H2-1은 기각되었으며 H2-2와 H2-3은 지지되었다. 또한 표준화계수 값에 따르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패션 혁신성이 패션 코드 자신감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에 정(+)의 영향, 패션 코드 자신감은 외모 불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패션 유능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패션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패션 관여도, 패션 혁신성, 패션 코드 자신감을 독립변수, 사회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3, 231)=10.23, p<.001$). 회귀분석 결과, 패션 관여도($\beta=-.11, t=-$

Table 4.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N=235)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S.E.	t	요약
1-1단계	패션 관여도	대인관계능력	.14	.03	2.34*	$adjR^2=.10$ $F=8.90^{***}$ $D-W=2.01$
	패션 혁신성		-.07	.03	-1.05	
	패션 코드 자신감		.28	.03	4.48***	
1-2단계	패션 관여도	외모 불안	-.02	.07	-0.38	$adjR^2=.10$ $F=8.98^{***}$ $D-W=2.20$
	패션 혁신성		.25	.07	4.07***	
	패션 코드 자신감		-.20	.07	-3.20**	
2단계	패션 관여도	사회불안	-.11	.05	-1.71	$adjR^2=.12$ $F=10.23^{***}$ $D-W=1.97$
	패션 혁신성		.05	.05	0.75	
	패션 코드 자신감		-.32	.05	-5.22***	
3단계 (매개변수)	패션 관여도	사회불안	-.04	.04	-0.78	$adjR^2=.52$ $F=99.42^{***}$ $D-W=1.90$
	패션 혁신성		-.09	.04	-1.86	
	패션 코드 자신감		-.13	.04	-2.61**	
	(대인관계능력)		-.41	.04	-8.03***	
	(외모 불안)		.42	.08	8.29***	

* $p<.05$, ** $p<.01$, *** $p<.001$.

-1.71, $p=.09$), 패션 혁신성($\beta=.05$, $t=0.75$, $p=.46$)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패션 코디 자신감($\beta=-.32$, $t=-5.22$, $p<.001$)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 H3-1과 H3-2는 기각되었으며 H2-3은 지지되었다.

3단계에서는 패션 유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3단계 모형은 2단계 모형에서 매개변수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유의하며($F(2, 229)=99.42$, $p<.001$), 설명력은 모형2보다 41% 증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사회불안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beta=-.41$, $t=-8.03$, $p<.001$), 외모 불안은 사회불안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42$, $t=8.29$, $p<.001$). 동시에 패션 코디 자신감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beta=-.13$, $t=-2.61$, $p<.01$). 패션 관여도($\beta=-.04$, $t=-0.78$, $p=.43$)와 패션 혁신성($\beta=-.09$, $t=-1.86$, $p=.07$)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패션 유능감이 대인관계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H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패션 유능감이 외모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H2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패션 유능감 중 패션 혁신성과 패

션 코디 자신감의 영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 점은 주의할 만하다. 패션 유능감 중 패션 코디 자신감만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H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4, H5)은 모두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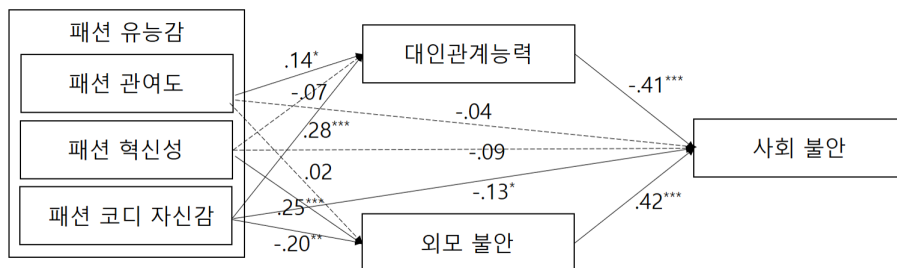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Table 5). 패션 관여도가 대인관계능력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z=-4.25$), 패션 혁신성이 외모 불안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z=2.95$), 패션 코디 자신감이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z=6.90$), 패션 코디 자신감이 외모 불안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z=2.51$)에서 z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 관여도가 외모 불안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와 패션 혁신성이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패션 관여도와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며, 외모 불안은 패션 혁신성과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 모두 패션 코디 자신감

Table 5. Results of the Sobel Tests of Mediation Effects (N=235)

경로	Sobel Test (S.E.)	경로	Sobel Test (S.E.)
패션 관여도→대인관계능력→사회불안	-4.25***(.01)	패션 관여도→외모 불안→사회불안	-0.29(.03)
패션 혁신성→대인관계능력→사회불안	2.28(.01)	패션 혁신성→외모 불안→사회불안	2.95(.04)**
패션 코디 자신감→대인관계능력→사회불안	-6.90***(.02)	패션 코디 자신감→외모 불안→사회불안	-2.51(.03)*

* $p<.05$, ** $p<.01$, *** $p<.001$.

Figure 2. Research Model (Results)



* $p<.05$, ** $p<.01$, *** $p<.001$.

Table 6.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shion Competence Sub-dimensions on Social Anxiety

(N=235)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패션 관여도→대인관계능력→사회불안	-0.4	.14* × (-.41***)=-.06***	-.11
패션 관여도→ 외모 불안→사회불안		.02 × (.42***)=.01	
패션 혁신성→대인관계능력→사회불안	-0.09	(-.07) × (-.41***)=.03	.05
패션 혁신성→외모 불안→사회불안		.25*** × (.42***)=.11**	
패션 코디 자신감→대인관계능력→사회불안	-0.13*	.28*** × (-.41***)=-.11***	-.32**
패션 코디 자신감→외모 불안→사회불안		(-.20**) × (.42***)=-.08*	

*p<.05, **p<.01, ***p<.001.

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또한 패션 유능감 하위 변인들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V. 요약 및 결론

대학생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 조절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유능감이 대인관계능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음과 동시에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외모 불안을 유발하여 오히려 사회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패션 유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유능감 중 패션 관여도와 패션 코디 자신감은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패션에 관심이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Hwang & Kim,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Lee와 Lee(2019)의 연구에서 패션에

대한 자신감은 대인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대인관계의 기술이 향상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패션 유능감 중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패션 코디 자신감은 외모 불안에 대해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코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용이 높고(Lee, 2016),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외모 불안 수준이 낮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Lee & Ku, 2009). 또한 대학생의 패션 유능감이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Lee 외(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패션 혁신성이 외모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패션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Bae & Sung, 2013), 자기 이미지 불일치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패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외모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Im, 2015). 또한 유행을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 차별화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로 인한 신체 불만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션 유능감의 하위요인 중 패션 관여도와 패션 혁신성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관여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능력을 통하여,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패션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면 패션에 대한 정보탐색, 구매 행동이 증가하는데(Jun et al., 2010),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그 자체로는 외모 불안이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패션에 대한 관심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개선되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

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총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패션 혁신성이 높을 수록 외모 불안이 높아지는 효과가 미미하나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으로 얻어지는 효과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패션 혁신성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iller et al., 1982)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모 불안을 통한 사회불안에 대한 부정적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패션 코드 자신감은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모델에서도 사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션 코드 자신감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또는 자신감의 연관성일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서 패션 코드 자신감은 본인의 패션 선택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 참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Kim, 1999), 자신감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결과(Son, 2017)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예측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능력은 사회불안에 부정적 영향, 외모 불안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사회 적응 능력이라고 한 선행연구(Antony & Swinson, 2000; Kang & Choi, 2011; Kim & Lee, 2013)의 결과와 일치하며, 외모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낮고 사회불안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Liao et al., 202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패션이 사회 적응과 정신 건강에서 갖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 한 가지 측면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패션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 불안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통합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패션 유능감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관심의 수준을 넘어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자각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회불안, 외모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션 테

라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패션 코디에 대하여 긍정적 자기평가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불안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패션 혁신성이 패션 혁신성이 외모 불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유행을 추구하거나 타인과 차별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양하고,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표본의 특성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응답자 중 남학생의 비율이 낮아 성별 비교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패션 유능감을 탐구하였으며,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 An, C.-Y. (2019). Body image management behavior, self respect, the influ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For adult mal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6),

- 620-631. <https://doi.org/10.5392/JKCA.2019.19.06.620>
- Antony, M. M., & Swinson, R. P. (2000). *The shyness & social anxiety workbook: Proven techniques for overcoming your fear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Bae, E. J., & Sung, H. W. (2013). Comparison of benefit sought and makeup behaviors based on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interest.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4), 107-123. <https://doi.org/10.12940/JFB.2013.17.4.10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oursier, V., Gioia, F., & Griffiths, M. D. (2020). Do selfie-expectancies and social appearance anxiety predict adolescents'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0(2020), 106395. <https://doi.org/10.1016/j.chb.2020.106395>
- Buhmester, D., Fu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 Cho, S.-K., & Choi, Y.-S. (2014). The impact of stress and coping style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1), 53-74.
- Choe, M.-H., & Kim, J. (2019). A study on the subtypes and gender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Focusing on cluster analysis and latent mean analysis of SASC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6), 115-135. <https://doi.org/10.15703/kjc.20.6.201912.115>
- Choi, E. Y. (2006).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and fashion information search of men: Focused on men in their twenties living in Busa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4), 596-608.
- Choi, I. S., & Choi, H. N. (2013).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2799-2815. <https://doi.org/10.15703/kjc.14.5.2013.10.2799>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The Guilford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Gao, J., Feng, Y., Xu, S., Wilson, A., Li, H., Wang, X., Sun, X., & Wang, Y. (2023). Appearance anxiety and social anxiety: A mediated model of self-compassion.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1105428. <https://doi.org/10.3389/fpubh.2023.1105428>
- Han, D., Lee, S., & Cho, Y. (2016). The influence of actual-ideal self-discrepanc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mong undergraduates: A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2), 397-415.
- Hart, T. A., Flora, D. B., Palyo, S. A., Fresco, D. M., Holle, C., & Heimberg, R. G. (2008). Development and examinat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Assessment*, 15(1), 48-59. <https://doi.org/10.1177/1073191107306673>
- Hope, D. A., & Heimberg, R. G. (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26-639.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4_3
- Hosoda, M., Stone-Romero, E. F., & Coats, G. (2003).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job-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Personnel Psychology*, 56(2), 431-462. <https://doi.org/10.1111/j.1744-6570.2003.tb00157.x>
- Hwang, J.-S., & Kim, Y.-H. (2006).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on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3), 143-155.
- Hwang, J.-S., & Lee, Y.-J. (2019). A study on the elements composing of the career women's social attractiveness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9(7), 34-50. <https://doi.org/10.7233/jksc.2019.69.7.034>
- Im, I. S. (2015). The appearance anxiety and aging anxiety in an appearance-discriminatory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4), 199-233. <https://doi.org/10.21562/kjs.2015.49.4.199>

- 015.08.49.4.199
- Jin, W. H., & Park, J. H.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ocial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6*(3), 581-601. <https://doi.org/10.17315/kjhp.2021.26.3.009>
- Jo, P. G., & Koo, E. Y. (198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leadership and self-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0*(2), 51-57.
- Jun, D.-G., Choo, H.-J., & Kim, H.-S. (2010). A study on the clothing involvement, fashion innovativeness, impulsive buying, and brand loyalty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3), 424-436. <https://doi.org/10.5850/JKSCT.2010.34.3.424>
- Jung, M.-J., & Chung, H. (2002). Influence of self-consciousness, self-concept, irrational belief on college students'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39-53.
- Jung, S.-A., & Oh, K.-J. (2005). The effect of self-discrepancy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presentation-motiv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887-901.
- Kang, J.-Y. M., Johnson, K. K., & Kim, J. (2013). Clothing functions and use of clothing to alter mood.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6*(1), 43-52. <https://doi.org/10.1080/17543266.2012.762428>
- Kang, S.-J., & Choi, Y. H. (2011).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ies: The intermediat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nxiety. *Human Development Research, 18*(3), 53-68.
- Kim, C. D., & Kim, S. I. (1999).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Student Research, 35*(1), 83-95.
- Kim, H. J., & Lee, M. H. (1997). A study on image preferences of clothing styles and self-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3*, 41-53.
- Kim, H.-H., & Kim, S.-J. (2013).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ody imag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ntent, 13*(12), 337-347.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337>
- Kim, H.-S. (2001). *Memory bias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R. (2011).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identity achiev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721-738. <https://doi.org/10.15703/kjc.12.2.201104.721>
- Kim, M.-K., & Hyun, M.-H.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61-176. <https://doi.org/10.15842/kjcp.2013.32.1.009>
- Kim, S. H. (1999). *The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on mental health of th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H., & Lee, Y.-J. (2013).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validation of social anxiety, empathy, social skills, anger-expressive for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affecting the euphoria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587-1604. <https://doi.org/10.15703/kjc.14.3.201306.1587>
- Kwahk, C. H., & Hong, H. Y. (2018).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sns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3), 33-62. <https://doi.org/10.21509/KJYS.2018.03.25.3.33>
- Lee, A.-J., & Choi, S.-M. (201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209-224. <https://doi.org/10.15703/kjc.16.4.201508.209>
- Lee, B., & Lee, J.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a gap between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expecta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7*(2), 19-34. <https://doi.org/10.35734/karp.2020.27.2.002>

- Lee, G., Lee, Y.-J., Lee, M., & Hwang, J.-S. (2023). Career women's perception of social attractive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uman Ecology Research*, 61(1), 155-168.
- Lee, H.-O., & Ku, Y.-S. (2009). A structural study on social self-efficacy,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1(2), 271-277.
- Lee, J. H. (2016). *The effects of implicit theories of appearance, lookism, and appearance acceptance on self-esteem s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ests of three-way interactions and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A., Shin, H.-L., Yoo, N., & Lee, K.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739-754.
- Lee, M. S., & Chae, P. K.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Korea*, 12(1), 63-75.
- Lee, M.-S., Choi, H.-S., & Yeon, E.-M. (2019). Relationship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ege adaptation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71-81. <https://doi.org/10.5762/KAIS.2019.20.3.71>
- Lee, M., Kim, M., & Kim, J.-H. (2023).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Anxiety and Mood*, 19(1), 1-9. <https://doi.org/10.24986/anxmod.2023.19.1.001>
- Lee, S. E., & Lee, Y. (2019). Qualitative approach to the maintaining the effect of fashion 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3), 311-326. <https://doi.org/10.5850/JKSCT.2019.43.3.311>
- Lee, S. E., Son, H., Lee, Y., & Ha, J. (2017). The study of implicit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fashion compet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1(4), 575-584. <https://doi.org/10.5850/JKSCT.2017.41.4.575>
- Lee, Y.-J. (2006).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over appearance in the social comparison process with advertising model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4), 633-643.
- Leigh, E., & Clark, D. M. (2018).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ts and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Applying the cognitive model of Clark and Wells (1995).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1(3), 388-414. <https://doi.org/10.1007/s10567-018-0258-5>
- Liao, J., Xia, T., Xu, X., & Pan, L. (2023). The effect of appearance anxiety on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Behavioral Sciences*, 13(8), 692-705. <https://doi.org/10.3390/bs13080692>
- Masuch, C.-S., & Heffernon, K. (2014).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positive psychology and fashion: A grounded theor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Studies*, 1(2), 227-246. https://doi.org/10.1386/inf.1.2.227_1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https://doi.org/10.1016/s0005-7967\(97\)10031-6](https://doi.org/10.1016/s0005-7967(97)10031-6)
- Mehtap, K., & Ahmet, S. Ö. (2023). Examination of social appearance anxiety through psychological theories. *Current Approaches in Psychiatry*, 15(3), 398-406. <https://doi.org/10.18863/pgy.1152765>
-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 (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https://doi.org/10.1177/1077727X8201000407>
- Moon, H.-K. (2019). The influence of family function on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lf-consciousnes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1), 77-92. <https://doi.org/10.20496/cpew.2019.6.2.77>
- Na, H. Y., & Shin, T. S.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the gap between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expectan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695-717.
- Pan, Y. (2023). Analysis of the causes of appearance anxiety of contemporary college students and its countermeasures. *Journal of Medical & Health Studies*, 4(4), 45-53. <https://doi.org/10.32996/jmhs.2023.4.4.6>
- Park, H.-H., & Choo, T.-G. (2012). Influence of consumer

self-confidence and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on attitude toward secondhand fashion goods and purchase intention of secondhand fashion goods. *The Society of Fashion and Textile Industry*, 14(4), 544-553. <https://doi.org/10.5805/KSCI.2012.14.4.544>

Perloff, R. (2014). Social media effects on young women's body image concern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 agenda for research. *Sex Roles*, 71(11-12), 363-377. <https://doi.org/10.1007/s11199-014-0384-6>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https://doi.org/10.1016/s005-7967\(97\)00022-3](https://doi.org/10.1016/s005-7967(97)00022-3)

Rapee, R. M., Magson, N. R., Forbes, M. K., Richardson, C. E., Johnco, C. J., Oar, E. L., & Fardouly, J. (2022). Risk for social anxiety in early adolescence: Longitudinal impact of pubertal development, appearance comparisons, and peer connec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4, 104126. <https://doi.org/10.1016/j.brat.2022.104126>

Shin, H. Y., & Lee, I. J. (2000). Effect of the fashion therapy for the psychiatric patients(part I).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7), 1088-1099.

Son, K. S.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skills and the ability of 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4(1), 1-27.

Song, J.-Y. (201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335-345.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Stein, M. B., & Stein, D. J. (2008). Social anxiety disorder. *The Lancet*, 371(9618), 1115-1125. [https://doi.org/10.1016/S0140-6736\(08\)60488-2](https://doi.org/10.1016/S0140-6736(08)60488-2)

Stopa, L., & Clark, D. M. (2000). Social phobia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ev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3), 273-283. [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043-1](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043-1)

Yu, X., & Lee, S.-J. (2022).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lookism on appearance beliefs and appearance anxiety: Focusing on the role of appearance conversations.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21(4), 163-198.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35명의 대학생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6.0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패션 유능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패션 관여도, 패션 혁신성, 패션 코드 자신감이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패션 관여도는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사회불안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반면, 외모 불안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패션 혁신성은 외모 불안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패션 코드 자신감은 대인관계능력과 외모 불안 모두를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 영향 미쳤으며,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다. 이 연구는 패션 유능감이 사회불안에 대해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사회불안 해결을 위해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패션 코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패션 혁신성의 과도한 추구는 외모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1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12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1월 8일